

투데이 칼럼

스피치는 현실로 만든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을 현실로 실현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생각의 대화(Self Talk)를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초점을 맞췄으로써 사랑과 부와 명성이 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옛날 중국에 우(愚)라는 노인이 살았는데 집 뒤에는 복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 이웃마을 출입에 큰 불편이 있었다. 90세 되는 새해에 가족회의를 하고 복산을 다 옮기기로 결정하고 산신령에게 기도했으나 산신령은 들은 척도 안했다. 그 후 우노인은 계속 흙을 퍼 날랐으며 아이를 불러 내가 죽으면 네가 계속하고 내가 죽으면 손자가 이어가도록 당부 하였다.

이 말을 엿들은 산신령은 노인의 굳은 의지에 복산을 옮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화다.

현대의 성공자 빌게이츠도 "희망은 말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하면 희망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페인 최고의 투우사가 되는 희망(꿈)을 삶의 모토로 삼았던 후앙 베르몬트는 젊은이가 있었다.

사실 이 베르몬트는 투우사가 되기에는 신체조건이 상당히 불리한 처지였다. 그는 투우사로서 가장 중요한 다리근육이 싹트지 않았던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것이다. 그는 부실한 다리 앞으로 소를 지나치게 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류레타'라고 불리는 붉은 천 조각을 사용해서 소를 다루는 기술을 창안해 냈다. 오늘날 '류레타'는 투우 경기의 보편적 소품이 되고 투우 경기의 전설이 될 만큼 자신의 희망을 실현시켰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네 단계를 살펴보면 제1단계는 자신의 희망을 종이 위에 써보자.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밝은 햇빛아래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2단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무순 일부러 시작하면 좋을지를 알아야 한다. 화가가 희망이라면 파리로 가고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밀라노로 향하라. 희망이 현실대는 본고장으로 가라. 그 곳에 가면 당신의

꿈을 구체화시켜 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3단계는 희망을 행동에 옮기는 일이다. 워싱턴에는 3백만에 가까운 발명가들의 생각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파묻혀 있다고 한다.

대다수가 행동에 옮기는데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날갯짓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굴러쳐 바뀌는 막대기를 밀어 주기만 하면 굴러가도록 되어 있다. 일단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사리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일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러면 성

공이 눈앞에 바짝 다가온다.

일명명의 성공한 백만장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공통점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현실에 관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마음을 굳게 잡아당기고 결단이 흔 들리지 않도록 하고 목표로 삼았던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제4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실 쓸도 알아야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계속 저돌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으면 잠시 동안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숨을 크게 몰아쉬고 즐겨라. 휴식이란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희망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4가지 단계를 말하였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의 대화(self talk)를 희망의 대화, 실천의 대화, 긍정의 대화, 여유의 대화를 통해 희망을 품고 실현하는 것이다.

'한사람의 인생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인디언 속담도 있고 윌리엄제임스는 '그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했으니 스피치는 바로 인생의 행들이다. 희망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말을 하고 살자.

사설

전북 살림살이 빨간 신호등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현실에 주목해야겠다. 도민들은 예전 그대로 행복지수를 말하기보다는 불행지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자. 전북도는 그것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방채 발행 전망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올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있을 전국 시도별 지방채 발행 전망을 보니 그렇다. 전국에서도 전북 지역의 지방채 발행 증가 비율이 연평균 25.4%로 가장 높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재정 건전성을 열려케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재정지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니 말이다.

전북도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긴장해야 한다. 지방채 연평균 발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리라는 언급은 최근에 행정 안전부가 공시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속이 상해도 투덜거리는 반응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근거 없이 그같은 전망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긴장 모드로 들어야 한다. 살림 살이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무반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전북도는 지난날 장밋빛 전망을 말했지만 지난 날 그 화려했던 장밋빛 전망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많은 이들이 많은 희망을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앞으로 관철시킬 거리는 전망을 말했음에도 전북 경제의 현실은 결코 속이 다르다. 말 그대로 속빈 강정 꼴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락되고 있는데 전북 지역 또한 그럴 게 뻔하다. 이대로는 희망을 말할 수가 없다. 복지 수요는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고 있다는 호소가 더욱 답답하게 들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젊은 이들이 한결같이 고대하는 일자리 창출도 그렇다. 도내 기업들이 전하는 소식이 어둡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수출이 호황일 때도 속으로 문제가 있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수출 실적이 하락세라니 말이다.

다시 말하거나 전북도는 재정 지립 문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북도가 발전이 더딘 것은 매년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북도는 정신 차려야 한다.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으므로 지방채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딱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진 구상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주문이다.

고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고용 불안정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북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고용 불안정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데다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으니 난감할 거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도 전북도가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다. 지역 청년들의 출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을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북도와 지역의 기성 세대가 너무 조용하다.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젊은이들만 폭풍해 하고 있지 않다. 정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마땅한 오늘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도 지적했지만 지난해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도는 지역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 그와 관련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으니 별스러운 일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어떻게 취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겠다.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관심의 눈길을 주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그런 일자리나마 오히려 줄어 버린 현실을 안타까워 해야 한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말바닥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미취업 젊은이들의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불안에 대해 공감 능력이 둔한 탓이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물론 청년 실업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전북도의 책임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듭 말하거나 청년 고용 불안정 문제는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고민과 진정성이 관건이다.

독자재언

다문화가정, 그들도 우리의 가족

지난 4일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문화가정들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냉대받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편견과 배타성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면서 정서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고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또래 집단과의 첫 만남장소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외모적 특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더불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미숙한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오는 심리적 갈등요인으로 인해 비행이나 일탈로 표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주기적인 학교 폭력 설문조사 실시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치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하고 있으며 다문화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적극 힘쓰고 있다.

우리도 이들 다문화나 탈북민이 나와 좀 다르다고 편견과 냉대를 보인다면 희망찬 미래는 요원하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우리사회가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하려는 마음 자세라고 본다.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내 가족이나 친구처럼 관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행복이 가득한 대한민국 건설의 든든한 일군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백요셉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소경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제 소원이 이뤄질까요"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동축제 '드림 클로즈'가 열려 한 소녀가 손수 만든 등불을 들고 보호자와 함께 즐거운 미소를 띠고 있다. 참가자들은 낮에 등불 만드는 법을 배워 저녁이 되면서 소망이나 꿈을 적은 등불을 연못에 띄우며 그것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Features a graphic of a sailboat on the sea and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ity that provides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quot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more, a newspaper with readers) and a call to action: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a better world).